

설교자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습관

C. H. 스펀전

손동식 박사(설교학)

<https://www.youtube.com/watch?v=pA5e-lQZsbc&t=7s>

설교자는 다음에 다섯 가지 습관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무력해지며, 교회와 교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첫째,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즉흥에 의존하는 습관이다.

준비 없는 설교는 무책임하며 뻔한 것이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로 설교자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설교자의 준비를 대신하지 않는다.

준비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는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와 같다.

그런 설교는 진리를 빈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説教者が必ず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習慣

C. H. スポルジョンの言葉から

ソン・ドンシク博士(説教学)

説教者は次の五つの習慣を必ず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しなければ、説教は無力になり、教会と信徒は危険にさらされる。

第1 準備をせず、即興に頼る習慣

準備のない説教は無責任であり、陳腐である。

「聖霊が助けてくださる」という言葉によって説教者の怠惰を正当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

聖霊の油注ぎは、説教者の準備を代わってくれるものではない。

準備なしで説教する説教者は、種を蒔かずに収穫を期待する農夫のようである。

そのような説教は真理を貧しくし、神の栄光を覆い隠す。

둘째, 설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습관이다.

설교의 핵심과 심장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한다.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자리는 연극 무대와 다를 바 없다.

회중을 향해 지식을 늘어놓고 자신의 사상을 자랑하며 인간적인 해법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스도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지 않는 설교는 착상에 있어서는 실수요, 실행에 있어서는 범죄이다.

아무리 웅장한 언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설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셋째, 감정 없이 진리를 전달하는 습관이다.

설교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第2 説教の中心にキリストの福音を置かない習慣

説教の核心と心臓は、常にキリストでなければならない。
講壇からキリストが抜け落ちるなら、その場所は演劇の舞台と変わらない。

会衆に向かって知識を並べ立てたり、自分の思想を誇ったり、人間的な解決法を押し出したりすることは、すべて説教の本質から外れたものである。

キリストが始め、中間、また終わりでない説教は、着想においては誤りであり、実行においては罪である。

どんなに立派な言葉であっても、そこにキリストがおられなければ、その説教は虚像にすぎない。

第3 感情なしに真理を伝える習慣

説教の言葉は単なる知識の伝達ではない。

그것은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깨우는 불이다.

그런데 설교자가 냉정한 교사처럼 성경 지식만을 딱딱하게 전한다면 그런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진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자이다.

영혼의 파멸을 말하면서도 눈물이 없는 설교자는 참으로 끔찍한 자이다.

진리는 머리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는 자여야 하며 자신의 전 존재로 진리를 전해야 한다.

넷째,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지는 습관이다.

강단은 설교자를 드러내거나 설교자를 높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이다.

강단에서의 설교자의 자기 자랑과 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청중에게 진리보다 인간의 그림자만 남긴다.

それは魂を揺さぶり、心を目覚めさせる火である。

もし説教者が冷たい教師のように聖書の知識だけを硬直的に伝えるとすれば、その説教者は真理を宣言しながらも、真理の重みを感じることをできていない者である。

魂の滅びを語りながら涙のない説教者は、まことに忌まわしい者である。

真理は、頭でだけ伝えられてはならない。

説教者は心の奥底から泣く者でなければならず、自分の全存在をもって真理を伝え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 4 自己顯示と高慢に陥る習慣

講壇は説教者自身を目立たせたり、高めたりする場ではない。

講壇はただキリストを高める場である。

講壇での説教者の自慢や誇示は、聖霊の働きを妨げ、会衆には真理ではなく人間の影だけを残す。

설교자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복음은 왜곡되고 청중의 영혼은 목마르게 된다.

가장 뛰어난 설교자일수록 자신이 설교를 못 한다고 느낀다.

다섯째, 기도 없이 강단에 서는 습관이다.

기도 없는 설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기도 없는 설교자는 화살이 없는 전사와 같다.

그런 설교자는 활은 가졌으나 아무것도 쏠 수 없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설교는 무력하다.

기도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넓은 통로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기도하는 설교자는 성령의 불길을 입에 담아 전하게 된다.

설교자의 진짜 힘은 강단이 아니라 무릎에 있다.

이러한 설교를 망치는 습관들은 단순히 설교자 개인의

説教者が自分を主役にする時、福音は歪められ、会衆の魂は渴く。

最も優れた説教者ほど、自分は説教ができないと感じるものである。

第5 祈りなしに講壇に立つ習慣

祈りのない説教は中身のない殻にすぎない。

祈りのない説教者は矢のない戦士のようなものである。

そのような説教者は、弓は持っても放つものが何もない。

祈りによって準備しない説教は無力である。

祈りこそ、聖霊が働かれる最も広い通路である。

祈る教会は聖霊の風に乗って舞い上がり、祈る説教者は聖霊の炎を口に宿して語るようになる。

説教者の真の力は講壇ではなく、膝にある。

これら説教を損なう習慣は、単に説教者個人の弱さで終わらない。

약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복음을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강단은 그저 연설이나 강연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강단은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가장 거룩한 전쟁터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결코 가볍게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가장 엄숙한 일이다.

설교자는 자신을 지켜 말씀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설교자가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로부터 돌이킨다면 설교는 그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며 교인들의 영혼은 소생하며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それは教会を病ませ、福音を無力化する致命的な毒となる。

講壇は単なる演説や講演の場ではない。

講壇は魂と魂が向き合う、最も聖なる戦いの場である。

ゆえに説教者は決して軽々しくその場に立ってはならない。

み言葉を宣べ伝えることは、人の魂に深く関わる最も厳粛な務めである。

説教者は自らを守ってみ言葉を汚さ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説教者がこのような致命的な習慣から立ち返るなら、説教は本来の力を回復し、信徒の魂は生き返り、教会は再びよみがえるであろう。

